

전북문학의 지역성, 그리고 공간

김 승 종(전주대)

< 목 차 >

- | | |
|-------------------------|------------------|
| 1. 전북지역 문인과 한국문단 | 4. 공간 연구의 새로운 방향 |
| 2. '창조적 변방성'과 '한'의 전북문학 | 5. 맺음말 |
| 3. 『혼불』에 나타난 전북문학의 지역성 | |

국문초록

전북문학은 한국근대문학이 본격적으로 출범한 1920년대 이후 지역의 한계를 넘어 한국문학의 주요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익상은 계급문학 활동을, 이병기는 국민문학 활동을, 그리고 유엽은 절충주의 문학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1930년대에 이르러 전북지역은 신석정, 서정주, 채만식과 같은 걸출한 시인, 작가들을 배출하였다. 해방 후에도 전북지역은 고은, 김용택, 최일남, 최명희, 양귀자, 은희경, 신경숙, 천이두 등과 같은 걸출한 시인, 작가 및 평론가들을 배출하였다. 전북 출신은 아니지만 다양한 연구로 전북지역에 살면서 창작 활동을 한 조병희, 박동화, 박봉우, 안도현, 서정인 등의 문학도 전북문학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최명희의 『혼불』에 제시되고 있는 장소들이 지닌 의미들을 작품에 등장하는 실재, 사물, 인물의 활동 등을 통해 밝혀보고자 하였다. 매안, 고리배미, 거명굴 등의 장소는 계급적으로 구별되어 있다. 청암부인은 경술국치를 당하던 해에 청호를 건설하는 강한 지도력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계급적 갈등을 완화하고자 하였고, 천민인 춘복

은 양반 집안의 여성인 강실을 강간하고 임신시킴으로써 계급적 장벽을 과감히 무너뜨리려 하였다.

전북지역은 조선왕조 내내 ‘창조적 변방성’과 ‘한’의 정신을 실천한 공간이었다. 전북지역은 또한 개방적·포용적·진보적 세계관을 지닌 지역으로서 계층 간의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선진 문화를 과감하게 수용하였고 수직적·봉건적 인습과 제도가 지닌 폐단과 모순을 가장 먼저 깨닫고 바로잡고자 한 지역이었다. 단지 깨닫고 인식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대동계와 동학농민혁명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선 지역이었다. 그 때문에 전북지역은 봉건 세력과 일제를 비롯한 외세와 가장 첨예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참담한 비극을 여러 차례 겪었으며, 차대와 소외 속에서 ‘한’을 품고 살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전북지역은 일정한 공간만 차지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섭하고 소통하는 역동적인 공간이며 차이와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의미를 생산하는 생활세계이기도 하다. 생활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은 하이데거가 말한 대로 ‘세계 내적 존재’이다. 전북지역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선구’함으로써 진정한 삶을 추구하는 문제적 인물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전북지역 문학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전북문학, 지역성, 공간, 장소, 최명희, 혼불, 한, 창조적 변방성

1. 머리말

오하근은 ‘전북문학’이 전북에서 나서 자라고 죽는 사람이 전북 방언으로

전북인만의 고유한 삶을 기록한 문학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오하근은 따라서 ‘전북문학’을 “전북인에 의한 한국문학”으로 폭넓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

1920년대에 전주 출신 시인 유엽(1902~1975)은 『금성』의 편집인으로 활동하였으며 이 시대에 유행하였던 감상적 낭만주의 시를 창작하였다. 익산 출신 이병기(1892~1968)는 국문학자이면서 ‘시조부흥운동’을 하였고 시조의 현대화에 이바지하였다. 파스쿨라(PASKYULA)의 일원이었던 전주 출신 소설가 이익상(1895~1930)은 카프(KAPF) 창설 과정에 참여하였고, 전주 출신 시인 김창술(1903~1905) 역시 카프에 가입하여 다수의 계급 시를 남겼다. 감상적 낭만주의 문학과 민족주의적 국민문학, 그리고 사회주의적 계급문학은 1920년대 문학의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는데, 전북지역 문인들은 유엽, 이병기, 이익상, 김창술 등을 통해 한국근대문학의 전개 및 분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²⁾

1930년대에 등단한 신석정(1907~1974), 서정주(1915~2000), 채만식(1902~1950) 등을 전북지역에 국한된 문인으로 볼 수 없다. 이들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시인, 소설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문학 세계에는 지역적인 색채가 짙게 배어있다. 무주 출신의 김환태(1909~1944)와 남원 출신 천이두(1930~2017) 역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친 평론가들이다. 구인회(九人會) 회원이기도 하였던 김환태는 목적주의 문학을 철저히 배격하고 비평과 문학의 독립성을 옹호하였다. 1959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천이두는 1974년에 간행한 『종합에의 의지』를 통해서 황순원 소설과 서정주 시에 대한 출중한 분석 능력을 보여 준 바 있다. 1993년에 간행된 『한의 구조 연구』를 통해서 ‘한(恨)’에 대한 새로운 이론 체계를 정립하였다. ‘한’은 애상적으로 체념과 절망에 빠지는 소극적·정태적 정서가 아니라, 부정적 정서(怨, 嘆)를 ‘삭임’이라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 정서(情, 願)로 전환하는 역동적 기제이며 ‘소극적 적극성’과 ‘수동적 능동성’을 지닌 양가적인 정서라는 것이

1) 오하근, 『전북현대문학·상』, 신아출판사, 2010, 10~11쪽.

2) 오하근, 위의 책, 19쪽.

천이두의 견해이다.

전주 출신 소설가인 최일남, 이정환, 양귀자, 최명희, 완주 출신의 이병천, 익산 출신 유현중, 최창학, 정읍 출신의 소설가 윤홍길, 신경숙과 다양한 시조를 실험한 장순하, 고창 출신의 은희경, 군산 출신 고은, 임실 출신의 김용택 등과 같은 소설가와 시인들도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고 문학사적으로 인정받는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전주 출신은 아니지만, 전북지역에서 학창 생활을 보냈거나 직장 생활을 한 문인들도 적지 않다.³⁾ 이들 역시 전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나 전북인의 삶을 소재로 한 작품, 그리고 전북의 역사·사회적 배경과 분위기 및 언어와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

전북지역 문인들은 전북지역 사람들의 삶과 생각, 감정, 정서, 언어 등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되, 전북지역이라는 공간에 한정된 창작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 1920년대부터 전북 작가들은 민족적인 문제와 계급적인 문제들을 자신들의 창작 활동을 통해 담아내고자 하였다. 1930년대 이후 전북 작가와 시인들은 식민 체제를 비판하고 식민 체제에 저항하는 민족 담론들을 창작 활동을 통해 선도하였다. 전북지역 출신 작가들이 지역민의 삶과 생각, 감정, 정서, 언어 등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면서 한국문학의 흐름을 주도하고 한국 사회의 주요 모순을 날카롭게 파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전북지역이 지닌 공간성인 ‘창조적 변방성’과 ‘한’의 정신에 있음을 이 논문을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창조적 변방성’과 ‘한’의 전북문학

전북지역은 마한 시대로부터 조선왕조에 이르는 동안 ‘창조적 변방성’을 지닌 공간이었다.⁴⁾ 전북지역은 드넓은 평야에서 산출되는 쌀, 부안·고창의

3) 신동엽, 박동화, 서정인, 박봉우, 안도현 등은 전북 출신은 아니지만, 전북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오랜 기간 문단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4) 신영복은 이처럼 중앙에 위치해 있지 않으면서도 중앙 못지 않은 높은 자존감과

염전에서 제조되는 소금, 장수·운봉의 광산에서 채굴되던 철을 비롯한 물자가 풍부하고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지역이었다. 판소리, 완판본, 부채, 한지, 목공예, 서화, 음식문화 역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발달하였던 지역이었으며, 개방적·포용적·진보적 세계관을 지닌 지역으로서 계층 간의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⁵⁾, 선진 문화를 민첩하면서도 세련되게 수용하였고 수직적·봉건적 인습과 제도가 지닌 폐단과 모순을 가장 먼저 깨달은 지역이기도 하였다. 단지 진보적 세계관을 깨닫고 인식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대동계와 동학농민혁명 등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한 지역이었다. 그 때문에 전북지역은 봉건 세력과 일제를 비롯한 외세와 가장 첨예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가혹한 시련과 참담한 비극을 여러 차례 겪었으며, 차대와 소외 속에서 ‘한’을 품고 살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조선 건국 초기에 전주는 이성계의 본향으로서 경기전이 건립되었고, ‘풍패지향(豊沛之鄉)’으로 존중받았다.⁶⁾ 그러나 전주 출신 정여립이 역적으로 몰려 체포당하기 직전에 자결하고 그가 조직한 대동계의 계원들을 비롯한

자긍심을 지니면서 높은 수준의 학문과 예술을 발전시킨 지역을 ‘창조적 변방성’을 지닌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로마는 그리스의 변방이었지만 고유한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제국을 건설하고 중앙의 자리를 차지한 바 있다. 중앙 지역이 호남 지역을 철저히 견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창조적 변방성을 지닌 호남이 중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으나, 일제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좌절된 것은 호남지역만이 아닌 한국근대사의 가장 큰 아픔이 아닐 수 없다.

- 5) 광대 중심의 하층문화였던 판소리가 양반에 의해서도 향유되고, 양반들의 독점물이었던 서책이 완판본 출간과 더불어 민중 계층에게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과정에서 통인이나 아전과 같은 중인계층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것도 전북지역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 6)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제사를 모시는 곳으로서 태조 어진이 봉안되어 있으며, 전주 이씨의 시조인 이한을 제사하는 ‘조경묘’,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하던 ‘전주 사고’ 등이 자리하고 있다. ‘한 고조 유방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는 뜻을 지닌 ‘풍패’에 연원하여, ‘풍납문’, ‘풍패지관’, ‘패서문’ 등과 같은 명칭이 전주의 주요 시설에 명명된 바 있다.

지역의 지식인들이 1,000명 가까이 희생된 ‘기축옥사’ 이후 전북지역은 중앙으로부터 집중적인 견제와 차대를 받아야만 했다. 정여립은 누구나 임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존 신분질서를 부정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대동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선조를 비롯한 당대 지배 세력들이 이와 같은 진보적 사상을 용납할 리 없었기 때문에 ‘기축옥사’라는 참사가 빚어지고 만 것이다.

이후에도 전북지역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수용에 앞장섰고,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다. 천주교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똑같은 인간이라는 교리를 신봉하며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었다. 1894년에 고부에서 발발한 동학농민혁명은 근대의 출범을 알리는 중대 사건으로서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외세와 부패한 봉건 세력들을 축출하고자 하였다.

정여립의 대동계, 전봉준의 동학농민혁명 등에 참여했던 전북인들이 지녔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과 의지는 지역적 한계를 초월하여 한국 사회가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주요한 추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북문학에도 당연히 이와 같은 개방적·포용적·진보적 성격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

전주, 남원, 고창 등은 세계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의 본고장으로 지금까지 인정받고 있다. 「춘향전」, 「흥부전」, 「변강쇠전」 등의 배경이 전북지역일 수밖에 없는 이유와 전북 방언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도 전북지역 특유의 개방적·포용적·진보적 성향과 분위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다른 지역에도 수많은 설화와 무가가 존재하였지만 유독 호남지역만이 때로는 설화와 무가를 종합하여 공연예술인 판소리를 생성·발전시킨 것이다.

근대작가 중에서도 앞에서 거론한 이익상과 김창술 외에도 김해강, 이근영, 윤규섭, 유진오 등이 진보적인 문학을 추구하였고, 채만식은 풍자를 통해 부정적인 현실과 인물들을 공격하였으며, 김용택, 안도현 역시 현실 비판적인 시의 창작을 통해 한국 사회의 모순을 문학 고유의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고발하였다. 이는 전북 문학이 전북지역의 공간적 특징인 ‘창조적 변방성’과 ‘한의 정신’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채만식이 일제강점기에 판소리의 서술 양식, 전라도 방언 등을 활용하여 ‘자본의 왜곡된 흐름’과 같은 식민지 자본주의의 본질을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지역 작가보다 채만식이 높은 자존감과 더불어 시대를 앞서가는 진보적 인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방기에는 시인 신석정이 「꽃뎀불」을 통해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진솔하게 고통스러웠던 식민 통치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진정한 민족 공동체의 건설’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창조적 변방성을 지닌 도시’인 전주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시대부터 판소리를 비롯한 전북지역 예술에는 ‘한’의 정서가 담겨 있다. 천이두에 의하면 한이란 원망(怨)과 자기 비하(嘆)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삭임’이라는 단계를 거쳐 소망(願)과 배려(情)라는 긍정적 정서로 승화시키는 정신적 기제를 가리킨다. 천이두는 또한 “‘삭임’의 단계에서 ‘한’의 주체는 ‘가치 있는 것’을 지향하고 ‘인욕’과 ‘정진’에 힘쓴다.”라고 하였다. 정여립의 대동계, 동학농민혁명 등을 소재로 한 전북문학에는 이와 같은 ‘한’의 정신이 분명히 담겨 있다. 정여립, 동학농민군 등은 모두 올바른 가치를 지향하고 ‘인욕’, ‘정진’의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가고자 했던 모습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⁷⁾

3. 『혼불』에 나타난 전북문학의 지역성

1) 장소성과 공간의 개념

조운아는 “문학의 공간과 관련한 연구에서 이-푸 투안을 언급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라고 하였다.⁸⁾ 그만큼 투안이 제시한 공간과

7) 정여립의 대동계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는 홍석영의 『소설 정여립』(2008), 최기우 각색 희곡 『홍도』(2018) 등이 있고, 동학농민혁명 소재 전북문학으로는 유현종의 『들불』(1972), 이병천의 『마지막 조선검 은명기』(1994) 등이 있다.

8) 조운아, 「두 가지 층위로 나타난 하얼빈의 장소성- 박경리의 『토지』를 중심으로」,

장소에 관한 개념은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공간은 장소보다 추상적이며, 미분화된 공간은 우리가 더 잘 알게 되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장소가 된다.”는 것이다.⁹⁾

문학작품 속의 공간 연구에서 이-푸 투안이 구분해 놓은 공간과 장소의 구분과 장소감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는 연구는, 작가의 공간 체험이 작품 속에서 어떤 장소성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투안의 영향을 받은 연구자들은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 혹은 서술자가 보여주는 장소감은 작가의 공간 체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며, 저자의 공간 체류와 동선(動線)에 주목하기도 한다.

한편 장소의 정체성을 개념화한 에드워드 렐프는『장소와 장소상실』에서 유일한 지역성을 지니는 구체적인 장소보다 집, 고향, 성소 같은 보편적 장소에 집중했다. 그리고 고유한 경험으로 인하여 사람마다 장소의 의미가 다르지만, “인간이라는 보편성으로 인해 타자의 주관성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호주관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경험과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결국 “장소 연구는 장소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 집단 간의 경험과 갈등, 협상이라는 장소의 정치학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¹⁰⁾

렐프에 의하면 주어진 장소에서 몸으로 하는 경험을 통해 인간은 장소와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관계에서 장소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장소감이란 무엇보다도 내부에 있다는 느낌이며,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장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다. 이 장소감은 개인의 정체성에 중요한 원천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에 대해서도 정체감의 원천이 된다.¹¹⁾

그동안 이-푸 투안과 에드워드 렐프의 이론이 가장 많이 활용되어 연구된 전북의 문학작품은 최명희의 『혼불』이다. 『혼불』 연구자 중 한 사람인 정도

『비평문학』 68, 2018.

9)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희, 심승희 옮김, 대운, 29쪽.

10)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옮김, 논형, 2005, 98쪽.

11) 에드워드 렐프, 위의 책, 150쪽.

미는 “공간의 형상화는 인물이 한 장소에서 그곳이 지닌 장소의 정체성이나 장소 표지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장소는 단순히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의 삶의 영역에 깊이 천착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혼불』 속 ‘매안마을’이 장소와 공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장소에서 공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획되어 서사의 완성을 이루어어나가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도 하였다.¹²⁾

정도미의 지적처럼 『혼불』은 장소와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최시한은 이-푸 투안의 『공간과 장소』를 참조하여 “기본적으로 공간의 의미는 주관성과 중층성을 띠기 쉽다. 본래 공간은 문화적 맥락 속에 존재한다. 게다가 소설의 일부가 된 공간은 단순한 지리적 처소에 그치지 않는 ‘조직된 의미 체계’, 즉 ‘장소화된 공간’이므로, 그것이 작품에서 다른 요소들에 대해 지배적으로 가능하면 그 의미는 더욱 넓고 근원적인 것이 된다.”라고 하였다.¹³⁾

2) 『혼불』의 장소성과 공간

『혼불』의 배경지인 남원 서도리 일대는 실제로 작가 최명희의 부친을 비롯한 사령 최씨 일가들이 살고 있었던 장소이고 작품 창작을 위하여 작가가 자주 방문한 장소이며 현재 ‘혼불문학관’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혼불』은 유난히 장소적 표지나 장소감이 분명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작품에서 제시되고 있는 매안, 고리배미, 거명굴 등은 단순한 공간적 구획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양반, 상민(常民), 천민이라는 신분적 차별과 그에 따른 의식과 세계관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혼불』에서 장소와 공간은 작품의 구성이나 주체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서 ‘물리적 환경’, ‘활동’, ‘의미’ 등을 들었다.¹⁴⁾ 매안마을(노봉리, 현재 남원시에

12) 정도미, 『『혼불』 속 매안마을의 다층적 공간 표상』, 『어문논총』 27집, 34쪽.

13) 최시한, 『소설분석방법』, 일조각, 2015, 115쪽.

14) 에드워드 렐프, 위의 책, 112쪽.

의해 ‘혼불마을’로 지정되어 있다.)에 위치한 ‘노적봉’과 ‘청호’, ‘거북바위’ 등은 ‘물리적 환경’ 곧 지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활동’과 ‘그 공간소들이 지닌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혼불』의 장소와 공간의 연구는 그동안 장일구¹⁵⁾, 조아름¹⁶⁾, 김수연¹⁷⁾, 정도미 등에 의해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혼불』의 주요 공간인 매안, 거명굴, 고리배미의 관계와 각 공간이 지닌 장소성과 상징성 등이 정밀하게 분석된 바 있다. 페미니즘적 시각, 생태주의적 시각이 함께 동원되기도 하였다.

매안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은 남성이 아닌 여성들이다. 그중에서도 청암부인과 효원, 강실 인월댁, 쇠여울네, 옹구네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노적봉은 매안마을을 굽어보면서 끌어안고 있는 지리적 환경이며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청호와 거북바위는 작가가 상상력을 동원하여 만들어진 장소로서 허구적 장소이다. 그러나 두 장소가 지닌 의미는 상통한다. 그리고 두 곳의 의미를 생성시키는 것은 ‘청암부인의 활동’이다.

‘노적봉’이 청암부인이 가지고 있었던 양반이라는 혈통, 지위, 권위 등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청호와 거북바위는 구체적으로 청암부인이 가문과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활동한 결과물이다. 청호는 청암부인이 마을의 숙원사업인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의 만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으킨 토목사업이다. 청암부인이 이 사업을 대한제국이 주권을 상실한 시기에 맞추어 완공한 것도 주목을 요한다. 남성들이 중심이 된 국가의 운영은 ‘경술국치’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지만, 여성인 청암부인은 “콩깍지가 시들어도 콩만 살아 있으면 언제든지 새싹이 돋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이 속한 가문과 마을의 내실을 다지고 힘을 키우고자 하였다.

청암부인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였고, 외지에서 흘러들어온 타

15) 장일구, 『서사공간과 소설의 역학』, 전남대출판부, 2009.

16) 조아름, 『『혼불』을 통해 본 여성(성)의 장소·공간 분화』, 『어문논총』 27집, 2015.

17) 김수연, 「〈혼불〉의 서사 공간 해체 구도」, 『어문논총』 27집, 2015.

성반이들의 생일까지 기억하고 챙겨주었다. 그러나 강호가 비판한 바대로, 청암부인이 토지를 넓히고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소작인들을 착취한 것도 사실이다. 어쩌면 청암부인의 구제사업이나 마을 주민에 대한 배려는 그들의 불만을 억제하고자 하는 고도의 술책일 수도 있다. 이처럼 매안은 청암부인의 삶의 행적에 따라 점차 확장되어 중층적이면서 양가적인 의미망을 축적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¹⁸⁾

노적봉과 중가집, 청호, 거북바위 등과 같은 장소들은 청암부인의 활동으로 인해 조화를 이루고 하나로 통합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혼불』은 이와 같은 조화와 통합이 언제까지나 유지 가능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작품이 진행되면서 확고했던 매안, 고리배미, 거명굴 간의 경계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청암부인의 죽음과 맞물려 일어나는 공간해체의 움직임은 『혼불』의 주제 의식 구현에 유효하게 관여한다.

매안 이씨 가문이 이기채의 주장에 따라 창씨개명을 받아들이면서 청암부인의 생명은 사위어가기 시작한다. 청암부인이 임종하면서 양반들의 권위와 지위는 급속하게 무너져가고 이와 동시에 신분 차별을 상징하던 경계도 해체되기 시작한다.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일제강점기 말이다. 작가는 우리 민족의 생명이 가장 위협받았던 시기가 곧 새로운 생명과 질서가 잉태되는 시기로 인식한 듯하다. 그런 의미에서 ‘혼불’과 ‘흙월정’은 서로 대조되면서 교차한다. ‘혼불’은 청암부인의 육체적 죽음에 즈음하여 인월택에 의해 목도된다. ‘흙월정’은 청암부인의 손부인 효원과 양반계급에 대한 적대감이 가장 강한 춘복에 의해 행해진다.

S. 채트먼이나 최시한의 견해에 따르면 ‘혼불’과 ‘흙월정’의 대상인 ‘달’ 역시 공간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혼불’과 ‘달’ 또한 물리적 요소, 활동, 의미 등을 모두 지니고 있다. ‘혼불’이 청암부인에 대한 진정

18) 청호는 여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스스로의 권위를 증명하며 그녀의 위용을 드러낸 의식적 공간이 된다.- 중략 - 이는 청호가 단순한 물리적 환경이나 장소가 아닌 그녀의 정신이 담긴 공간으로 변모하였음을 의미한다. 정도미, 위의 논문, 35~36쪽.

한 ‘추모’의 의미를 지닐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청암부인이 존경받을 만한 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흙월정’이 효원의 아들 철재의 수태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효원의 이씨 집안의 종손을 낳겠다는 간절한 기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거명굴의 천민 춘복은 갑오개혁 이후 정부가 신분제도를 철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안마을에 여전히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계급의식과 봉건적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몸부림친다. 강실을 납치하여 겁간하고 임신시키는 행위는 바로 춘복의 ‘흙월정’으로 이어지는 ‘활동’에 해당한다.

이처럼 『혼불』은 진작에 사라졌어야 할 계급의식과 봉건적 질서가 마침내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청암부인에 의해 지연되었던 붕괴는 강모와 강수의 근친상간, 강모의 방황과 출향, 무능하고 나약한 종손의 행위, 창씨개명, 강태와 강호의 사회주의 사상, 춘복, 옹구네의 강실 납치와 강간, 백단네 부부의 투장 등에 의해 균열이 가고 붕괴가 이루어진다.¹⁹⁾

아쉽게도 1998년에 작가 최명희가 영면하는 바람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모습을 『혼불』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나 『혼불』은 미완성작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설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독특한 형식과 내용을 통해 ‘모든 생명체와 우주와 자연현상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생명체는 모두 소중하다’라는 작품의 주제를 독자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다.

3) 『혼불』에 나타난 ‘창조적 변방성’과 ‘한’의 정신

최명희의 『혼불』에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창조적 변방성’과 ‘한’의 정신이 담겨 있다. 이 작품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데에는 곁갈래 이야기들이 병렬적으로 이어진 서사구조, 풍부하게 담겨 있는

19) 강호는 덕석말이를 당한 춘복과 백단네 부부를 만나기 위해 직접 거명굴로 찾아가서, 자신이 직접 일하여 번 돈을 약값으로 쓰라며 건넨다. 양반인 강호가 거명굴에 직접 찾아온 것은 이제껏 금기시 되어 왔던 일이다. 강호의 경계해체 시도는 거명굴 사람들이 양반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심리적 거리를 완화시키고 있으며, 이후 실리적 거리까지 무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매안과 거명굴의 경계 또한 해체된다.

전북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확하고 적절하게 구사되고 있는 전북방언 등과 같은 요인도 있지만, 전북지역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창조적 변방성’과 ‘한’의 정신이 아울러 담겨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신영복은 변방을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누구도 변방이 아닌 사람이 없고, 어떤 곳도 변방이 아닌 곳이 없고, 어떤 문명도 변방에서 시작되지 않은 문명이 없다. 어쩌면 인간의 삶 그 자체가 변방의 존재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변방은 다름 아닌 자기 성찰이다.”²⁰⁾

신영복에 의하면 ‘중심’은 질서와 규칙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늘 교조적이며 변화를 두려워한다. 공간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다. 중심은 당대의 지배질서이며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이다. 이에 비해 변방은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는 세계’이다. ‘변방’은 또한 지배 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창조적 공간이기도 하다. 변화와 창조는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하여 요구되는 가치이다.

조선 시대와 일제강점기에 전주나 남원은 중심이 아니었다. 그러나 전주나 남원은 삼국시대부터 주요 도시로 기능하였다. 전주는 후백제의 수도와 조선의 본향으로서의 높은 자긍심을 지니고 있었고 남원은 임진왜란과 동학 농민혁명 시기에 조국과 올바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커다란 희생을 치른 지역이었다. 『혼불』의 서사구조, 문체, 인물의 형상화는 일반적인 소설의 형태와는 일정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곧 『혼불』은 ‘중심성’이 아닌 ‘변방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청암 부인은 비록 양반이지만, 여성이면서 청상과부라는 점에서 ‘변방성’을 지니고 있다. 그녀는 양반의 지위나 권위에 집착하지 않고 과감한 수리사업을 벌이고 하층 계급 인물들을 포용한다. 이에 비해 이기채와 이기표 등은 양반으로서의 ‘중심성’을 고집하다가 점차 몰락해 간다. 이 작품에서 ‘변방성’을 드러내는 또 다른 인물은 춘복이다. 그는 오랜 세월 유지되어 온 양반들

20) 이채은, 『처음 읽는 신영복』, 헤인북스, 2019, 197쪽.

의 권위에 도전한다. 강실을 납치하고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배태하게 한다. 물론 그의 행위는 결코 정당성을 획득할 수는 없지만, 계급적 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그의 시도는 일정하게 ‘창조적 변방성’을 지니고 있다.

청암부인은 또한 ‘한’의 정신을 표출하고 있기도 하다. 그녀는 혼례식을 치르자마자 남편을 잃고 청상과부로 살아가야 했다. 더욱이 시부의 무능과 무기력으로 인해 가세도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다. 얼마든지 자신의 운명과 세상을 원망하고 자탄할 수 있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업을 일으키기 위하여 패물까지 팔아가며 재산을 증식해 간다. 그는 국권 상실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대규모 수리사업을 통해 가세는 일으킴은 물론, 마을의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와 같은 청암부인의 모습에서 ‘올바른 가치’를 지향하고 인육과 정진을 통해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한’의 정신을 찾아볼 수 있다.

4. 공간 연구의 새로운 방향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푸 투안, 에드워드 렐프 등의 장소와 공간 이론은 한국문학작품의 공간 연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들의 현상학적 방법론은 실증주의적 공간 연구나 반영론적 연구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게 하였다.

우리는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공간 속에 우리 인성을 투영하며, 공간에 감성의 끈으로 묶여 있다. 공간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도와 상상, 그리고 공간 자체의 특성, 이 양쪽에서 비롯된 내용과 실체들로 채워져 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도 살고 있는, 또는 감동적인 경험을 가졌던 장소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장소를 의식하고 있다.²¹⁾

변화영은 「소설 『탁류』에 나타난 식민지 근대성」에서 “『탁류』에 형상화된

21)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104쪽.

군산의 주거공간, 노동공간, 교육공간, 소비공간 등이 발전과 진보를 위한 해방의 근대성이 부재한, 왜곡된 근대화 과정”을 노출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²²⁾ 그 결과 군산이 조선인들에게는 “안락하고 풍요로운 ‘집’, 내일을 약속하는 ‘일터’, 개인의 자유와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학교’, 평등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시장과 유흥가’ 등이 부재한 공간”이라고 지적하였다.

변화영은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1930년대 당시 군산의 지형을 철저히 조사하고 지도로 제시하였으며, 작품에 드러난 인물들의 성격과 사건과 공간과의 관련성을 추적하였다. 군산은 일제에 의하여 건설된 도시이며 항만, 철도, 도로를 비롯하여 은행, 정미소, 창고, 세관, 뜰다리 등과 같은 미곡 수탈을 위한 시설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미곡취인소(미두취인소)를 통해 투기를 조장하고 유곽을 통해 퇴폐 문화를 부추기는 시설까지 갖춘 도시였다.

채만식은 『탁류』에서 알레고리 기법, 패러디 기법, 상징 등의 기법을 동원하여 ‘자본의 왜곡된 흐름’으로 대표되는 식민지 자본주의의 본질을 날카롭게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변화영의 『탁류』의 공간 분석은 『탁류』에 대한 기존의 학설을 더욱 공고하게 뒷받침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소는 추상이나 개념이 아니고, 생활세계가 직접 경험되는 현상이다.²³⁾ 그래서 장소는 의미, 실제 사물, 계속적인 활동 등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 정체성의 중요한 원천이며, 때로는 사람들이 정서적·심리적으로 깊은 유대를 느끼는 실존의 심오한 중심이 된다.²⁴⁾

하이데거는 세계 내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상관없이 어떤 구체적 여건과 상황 속에서 내던져진 존재이지만, 이 존재론적 제약 속에서

22) 변화영, 「소설 『탁류』에 나타난 식민지 근대성」, 『지방사와 지방문화』 7권 1호, 2004, 334쪽.

23) 생활세계는 현상학의 창시자인 훔설이 제시하여 하이데거에게까지 이어지는 개념으로서, 前과학적, 前개념적, 상호주관적 세계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세계이며, 자연과학과 철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이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세계이다. 심승희, 「장소의 진정성과 현대 경관」, 에드워드 렐프, 위의 책, 303쪽.

24) 에드워드 렐프, 위의 책, 294쪽.

인간에게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주어진 여건과 제약에 완전히 지배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진지한 자각과 이해,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의한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 진정한(본래적) 자아를 이루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익명적인 대중적 삶의 일상성에 매몰되어 가는 무비판적인 대중인, 평균인, 세인으로 살아가는 비진정한(비본래적) 자아를 갖는 것이다.²⁵⁾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전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죽음의 현상을 분석한다. 현존재는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서 파악된다. 왜냐하면 죽음은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가장 독자적이고, 몰교섭적이고, 확실하고, 무규정적이고, 뛰어넘을 수 없는 가능성이다. 비본래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죽음을 회피하여 당장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실존론적으로는 그런 죽음을 앞질러 감으로써 각자의 현존재의 전체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두고 하이데거는 ‘죽음에로의 선구(先驅)’라고 하였다.²⁶⁾

하이데거에 의하면 공간은 그때그때 장소로부터 부여된 것이다. 절대적인 공간으로서 항존적인 실체가 아니다. 한 장소에 의해, 다리 역할을 하는 한 사물에 의해 모아진다. 사물은 사방(하늘, 땅, 죽음, 신)의 장소를 성립하고, 사방이 머무르는 터전을 허용함으로써 인간이 그 안에 거주할 근원적 장소를 열어놓고 마련한다. 사물은 사방세계를 모으고 지키는 일종의 집이다. 공간들은 그들의 본질을 장소들로부터 받는 것이며 ‘절대적 공간’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다. 사물이 사물로 드러날 때, 공간도 유의미한 존재가 된다. 인간은 사물에 의해 제약된 존재자이다.²⁷⁾

에드워드 렐프는 현상학에서 출발한 하이데거의 장소론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장소를 엄밀하게 정의하거나 그 개념을 명료화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장소와 지리학의 현상학적 토대 사이의 연계, 모든 형식적 지리학 지식의 전제가 되는 세계에 대한 직접 경험을 검토함으로써 장소 개념이 탐구되어

25) 박찬국, 『들길의 사상가, 하이데거』, 그린비, 2013, 76~77쪽.

26) 소광희,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강의』, 문예출판사, 2001, 153쪽.

27) 강학순, 『존재와 공간』, 한길사, 2011, 313~314쪽.

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소란 단지 사물이 위치한 ‘어디’가 아니라 위치 이상의 것이며, 통합되어 있고 의미 있는 현상으로 보이는, 위치를 접하는 모든 것이다. 모든 장소는 자연물과 인공물, 활동과 기능, 의도적의 의미가 종합된 총체적 실체이다.²⁸⁾

장소는 고유한 입지와 경관, 공동체에 의하여 정의되기보다는 특정한 환경에 대한 경험과 의도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장소는 생활세계가 직접 경험되는 현상이다. 장소는 의미, 실재, 사물, 계속적인 활동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의 중요한 원천이며, 때로는 사람들이 정서적·심리적으로 깊은 유대를 느끼는 인간 실존의 심오한 중심이 된다.²⁹⁾

5. 맺음말

지금까지 전북지역의 문학적 특성을 개괄하는 가운데 전북문학의 지역성을 고찰해 보았다. 전북지역은 오랜 기간 축적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창조적 변방성’과 ‘한’의 정신을 지닌 공간이 되었다.

높은 경제력, 문화 수준, 진보적 세계관 등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전북지역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합리적인 질서가 지배하는 세계를 꿈꾸며 대동계를 조직하고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용적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면, 동학 농민혁명 당시 집강소를 설치하여 민주적인 통치 체제를 실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전통은 192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전북문학이 한국문학을 상당 부분 이끌어 가면서 계승되었다.

1937~8년에 발표된 채만식의 『탁류』는 군산의 여러 장소들- 콩나물고개, 미곡취인소, 조선은행, 궤보선창, 유곽 등- 사이에서 초봉을 비롯한 등장

28) 강학순, 위의 책, 334쪽.

29) 강학순, 위의 책, 338쪽.

인물들이 계속적인 활동을 보이는 가운데 드러나는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 이재선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본래 군산에 거주하던 인물이 아니라, 모두 타지에서 군산으로 흘러들어온 인물이라는 점과 ‘매독’이 지닌 상징성에 주목한 바 있다. ‘매독’은 문란한 성생활을 일삼던 고태수가 걸린 병으로서 신부인 초봉에게 전염되기 직전에 남승재에 의해 치유되는 병이다.³⁰⁾

이 작품에서 인구의 군산으로의 유입과 매독이 상징하는 것은 일제의 수탈과 억압, 투기 자본의 횡행, 퇴폐적인 문화의 범람 등이다. 채만식은 일제의 수탈과 억압이 매우 정교하고 치밀한 기획과 시스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이 작품에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법들 - 상징, 비유, 알레고리, 패러디 등 - 은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한편,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교묘하게 감추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도 한국을 대표할 만한 여러 시인과 작가를 배출하였고,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 중에는 전북지역에서 출생하였지만, 서울을 비롯한 타지에서 활동하는 이들도 있고, 다른 지역 출신이지만, 전주에서 활동한 이들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전북지역의 장소와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들 작품에는 어떤 식으로든 장소가 지닌 물리적 요소, 그 장소 내에서의 활동과 경험, 철학적·역사·사회적 의미 등이 풍부히 담겨 있을 것이다.

전북지역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빈공간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섭하고 소통하는 역동적인 공간이며 차이와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의미를 생산하는 생활세계이기도 하다. 생활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은 하이데거가 말한 대로 ‘세계 내적 존재’이다. 전북지역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선구’함으로써 진정한 삶을 추구하는 문제적 인물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전북지역 문학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30) 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주체학』, 문학과지성사, 2007, 173~177쪽.

참 고 문 헌

<단행본>

- 강학순, 『존재와 공간』, 한길사, 2011.
- 박찬국, 『들길의 사상가, 하이데거』, 그린비, 2013.
- 소광희,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강의』, 문예출판사, 2001.
- 신영복, 『담론』, 돌베개, 2015.
- 오하근, 『전북현대문학·상』, 신아출판사, 2010.
- 이재선, 『현대소설의 주제학』, 문학과지성사, 2007.
- 이재은, 『처음 읽는 신영복』, 헤이복스, 2019.
-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옮김, 논형, 2005.
-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희, 심승희 옮김, 대운, 2007.
- 장일구, 『서사공간과 소설의 역학』, 전남대출판부, 2009.
- 전주시청 편, 『꽃심 전주』, 2017.
- 정정호 편, 『들뢰즈 철학과 영미문학 읽기』, 동인, 2003.
-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3.
- 최시한, 『소설분석방법』, 일조각, 2015.
- (사)한국문인협회 전북지회, 『전북문단 70년사』, 신아출판사, 2016.

<논문>

- 김수연, 「〈혼불〉의 서사 공간 해체 구도」, 『어문논총』 27집, 2015.
- 변화영, 「소설 『탁류』에 나타난 식민지 근대성」, 『지방사와 지방문화』 7권 1호, 2004.
- 정도미, 「『혼불』 속 매안마을의 다층적 공간 표상」, 『어문논총』 27집, 2015.
- 조아름, 「『혼불』을 통해 본 여성(성)의 장소·공간 분화」, 『어문논총』 27집, 2015.
- 조유아, 「두 가지 층위로 나타난 하얼빈의 장소성- 박경리의 『토지』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68집, 2018.

【Abstracts】

The Regionality of Jeonbuk Literature

Kim, SeungJong(JeonJu Univ.)

The literature of Jeonbuk got involved the main stream of Korean modern literature actively after 1920s. Lee Iks Sang joined KAPF that is socialistic organization of literatue, Lee Byeng Ki wrote Koran traditional poems, and Yu Yep engaged eclecticism of the those days.

The poets and writers of Jeonbuk leaded a Korean modern literature from 1930s. Sin Suk Jung wrote a romantic poems that protested Japanese imperialism. Se Jung Ju wrote a poems that succeed to traditional Korean mental world. Chae Man Sik wrote a satire novels that criticizes sharply Japanese colonial capitalism.

After 8·15 Liberation a lot of poets, writers, critics worked in various fields of the Korean literature. Ko En, Kim Yong Taec, Mun Sin leaded a the world of Korean poetry. Choi Meyng Hye left 'Hon Bul', that put cultural heritage of Jeonbuk into this novel. Chyen Ie Du made the theory of 'Han' that negative emotion switch over to positive emotion by 'Sak Im'.

The place of 'Hon Bul' is devided into three areas. The aristocrats lives at Maeon, The Middle class of people lives at Goribaemi. And The lowest class of people lives at Gemengul. But Madam Chungam cross the wall of class by construction the Chungho dam. The Chungho dam resolved water shortage of town. And she gave hope to all the people of town at the trying times when lost national sovereignty. Chubok who belongs the lowest class, tried to destroy the wall of class by lapping the

lady who is novel woman.

Jeonbuk was the place where had 'the creativity as a border area'. The 'creativity as a border area' has the highest self regard and higher level of the spirit of the times than the capital, Hanyang. Jeonbuk has the supremacy of food culture, sound culture, art culture, craft etc. Besides Jeonbuk have tried to change the feudal systems into democratic systems. The group of Daedong organized by Jung Ye Lip and the revolution of Donghak dreamed equal world which everybody has equal right.

Therefor the Literature of Jeonbuk have 'Han' and 'creativity as a border area'. When Jeonbuk went through a terrifying ordeal, the literature of Jeonbuk didn't yield that ordeal, but have overcome that ordeal. And the Literature of Jeonbuk always dreams new world where everyone has equal right to happiness and freedom through 'creativity as a border area'

Key Words : literature of Jeonbuk, regionality, 'creativity as a border area' 'Han', 'Hon Bul',

이 논문은 2019년 06월 1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07월 1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07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